

# 설날 가정 예배

인도자(가정의 가장 혹은 신앙의 세대주)

◎ 개 식 사 ..... 말 은 이  
설 명절을 맞아 하나님께 명절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 신앙고백 ..... 다 같 이

◎ 찬 송 ..... 559장 ..... 다 같 이

-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지들 사랑에 뭉쳐있고 /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알하는 온 식구가 /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여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 공동기도 ..... 다 같 이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 예수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선대하여 더욱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집안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모님들의 사업과 일터를 살피주시며, 자녀들의 앞길과 장래를 인도하사 주안에서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요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성경봉독 ..... 시편128:1~6 ..... 말 은 이

<sup>1</sup>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sup>2</sup>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니 <sup>3</sup>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니 <sup>4</sup>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니 <sup>5</sup>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 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sup>6</sup>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 말 씀 ..... 설날 우리가정은 이렇게 살자! ..... 설 교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6가지를 제시해 드릴 때 온 가족들이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면서 한 해를 살아갈 때에, 각자 인생에서 가정적으로 가장 기록에 남는 해, 가장 복된 해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말씀의 중요 내용 6가지는 하나님과 직장가 가정 3가지로 분류되는데

##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자

각자 주어진 인생을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무엇보다도 자신의 힘으로는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

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 한해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를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자"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인가? 나의 삶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긴급한 것인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예배에 실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에 성공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간절하게 신령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즐거워야 합니다. 1주일 중 첫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 지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한 주일 첫 날, 주일 예배에 성공하면 1 주일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 둘째로, '성경대로 살자' 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쓰는 것도, 듣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왜 하는 것입니까? 듣고 은혜 받으려고요, 맞는 말씀이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복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도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도를 듣고 은혜받고, 고개만 고뒀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식도 부모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자식을 효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고, 내가 성경을 아는 수준만큼 신앙 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요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안되거든요.

## 세 번째, '손으로 수고하자' 입니다.

2절에 보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악인들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남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손은 움직여 수고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수고하지 아니하고 먹으려고 하니 문제가 생겨납니다. 성경에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당한 노동을 요구하시고 그 소득에 더하여 의를 겸하라고 했습니다.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일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 힘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복음 전하며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잘 드렸는데 직장 가서, 일터에 가서 일 안 한다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 네 번째, '가정을 지키자' 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가정은 행복의 기초요 신앙 생활의 기초요 사회 질서의 기초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해 집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가정이 해체되어 가고 있어요.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것입니다. 연습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 가정을 허물어 버리려고 얼마나 많이 공격해 오는지 몰라요, 오늘날 사회는 살기가 편해지지만 가정은 갈수록 심각해져 갑니다.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위치, 아내의 위치, 자녀의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의 내실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의 내실만은 아내가 지켜야 합니다. 절대로 누구에게도 이것 빼앗기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남편이 나가서 힘차게 일하도록,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신나게 공부하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 영양분이 뭘까? '기도와 눈물 그리고 사랑'입니다. 아내의 위로와 눈물, 어머니의 품과 무릎보다 더 좋은 영양분이 어디 있어요.

**다섯째, '자녀를 잘 교육시키자' 입니다.**

본문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네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이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늘 자식들을 걱정하고 잘 키워보고 싶으시죠. 좋은 대학가서, 좋은 직업 구해서,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 섬길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조국을 사랑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가족을 사랑할 줄 알고, 자연을 사랑할 줄 알고, 인류에게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진정한 교육이란 인격을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식만 심어주고 졸업장만 따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교육 장소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어디예요? 3절에 보세요, '네 상에 돌린 자식, '식탁'이라는 겁니다. 식탁 문화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식탁은 청문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꼭 밥 먹을 때 싸움하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의 식탁을 밥만 먹는 장소가 아니라 최고의 교육현장으로 여겼습니다.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신앙가족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복 주신다' 입니다.**

복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데로 살면 진정한 복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인데. '시온에서 복을 주실찌어다' 시온이란 것은 하나님의 처소 즉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시대에 교회생활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열심히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남편과 특히 아내의 위치와 역할을 잘하여 가정을 지키고, 신앙가족을 만들고, 자식들을 잘 준비시켜, 시편 128편이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서 이 6가지를 실천하며 살 때, 우리는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나도 가정도 일터도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나눠주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 설교자기도 .....설교자가 대표기도나 혹은 가족 전체가 통성기도하고 설교자가 마무리 기도..... 설교자

◎ 찬 송 ..... 301장 ..... 다 같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 주기도문 ..... 다 같이

♡예배 후,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지난 날 기뻐던 일, 어려웠던 덕담을 나눕니다.

2022

# 설날감사에배

설날예배를 통해 온 가족들과 일가친척이 모여서  
항상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족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 예 배 준 비

1. 예배상을 준비하고 그 상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둘러 앉습니다.
2. 예배 전에 가족들이 한 해 기도제목을 예배상에 적어서 올려놓습니다.
3. 예배순서에 따라서 가족 중 신앙의 세대주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4. 예배순서 중 기도나 성경봉독을 가족들이 나누어 담당하면 좋습니다.
5. 예배 후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